

프로농구 오늘 이색 3경기

‘천적’ 맞대결

3연승 창원 - 원주 삼성 - SK 안양 - 전주

20일 열리는 2006-2007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3경기가 모두 올 시즌 먹이 사슬로 얽혀 있는 팀들끼리 맞대결로 짜여 관심을 모은다.

장기 레이스를 펼치다 보면 유난히 약세를 보이거나 강한 관계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한 날 열리는 경기가 모두 천적들 간의 격돌로 펼쳐지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날 오후 3시 원주지약체육관에서 열리는 원주 동부-창원 LG전은 LG가 올 시즌 3전 전승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시즌 마지막 2경기까지 치면 LG는 최근 동부를 상대로 5연승 중이다. 특히 2006년 12월 30일 경기에서는 LG가 외국인 선수 퍼비스 파스코가 출전 정지 징계로 빠진 와중에서도 동부를 7점차로 꺾어 동부에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2003-2004 시즌부터 챔피언 결정전에서 2년 연속 다뤘던 사이인 신진우 LG 감독과 전장진 동부 감독의 ‘사령탑 대결’도 볼 만하다.

잠실학생체육관에서는 서울 SK와 서울 삼성의 ‘서울 라이벌전’이 열린다. 그러나 라이벌이란 말이 무색하게 올 시즌 삼성이 세 번 만나 모두 이겼다.

안준호 삼성 감독은 SK의 초대 감독을 지낸 경력이 있고 강양택 SK 감독대행은 현역 시절을 삼성에서 보냈다. 지난 시즌에도 3라운드까지는 삼성이 전승을 했으나 이후 세 경기는 SK가 모두 이겨 3승3패 균형을 이루며 라이벌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어떨지 궁금하다.

안양 KT&G와 전주 KCC의 안양 경기는 KCC의 ‘KT&G 징크스’ 탈출 여부가 관건이다. 올해 세 번 만나 모두 진 것은 물론이고 지난 시즌 1승5패 등 최근 10번 싸워 1승9패로 절대 열세를 면치 못했다.

이번 시즌이 KCC가 최하위에 처져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4강 플레이오프까지 올랐던 지난 시즌에도 6강에 못 오른 KT&G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20일 열리는 세 경기에서 그 동안 당한 팀들이 ‘복수 협전’에 성공할 지 아니면 다음 대결에서 ‘4전 5기’를 기약해야 할 지 관심이 쏠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농협, 현대 인수 물건너 갔다”

하일성 KBO총장 밝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운영난에 빠진 현대 유니콘스의 공중 분해를 막기 위해 범현대그룹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19일 “농협의 야구단 인수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 같다”고 밝힌 뒤 “현대 유니콘스가 시즌 도중에 해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현대 유니콘스 형태 기업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전격적으로 ‘야구단 인수 보류’를 발표했던 농협은 KBO에 “반대 여론이 거세 내부 입장을 조율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여론이 돌아서지 않으며 인수가 쉽지 않다”

는 뜻을 전달해 왔다.

농협은 대외적으로 ‘인수 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일성 총장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니콘스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지원금 재개를 읍소할 계획”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1996년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회장이 직접 나서 창단한 유니콘스는 그동안 현대차 그룹이 연간 80억원, 전 구단주였던 고(故) 정몽헌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에서 40억원, 정몽운 회장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37억원 가량을 지원해 운영됐다.

이천수도 잉글랜드행 눈앞

위건 영입 제안서 접수 입단 협상차 23일 출국



해외진출을 추진해 온 프로축구 울산 현대 이천수(26·사진)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위건 애슬레틱 입단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울산 구단은 19일 “이천수가 위건과 입단 협상을 위해 23일께 영국으로 출국한다”며 “이에 따라 이천수는 20일 터키 안탈리아로 떠나는 팀 전지훈련 명단에서 일단 제외됐다”고 밝혔다.

울산은 “위건으로부터 이천수에 대한 공식 영입 제안서를 접수했고 이천수 본인과 상의해 이를 받아들일기로 결정했다”면서 “구체적인 이적 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주 영국 현지에서 이천수와 구단 매니저인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건은 지난 2005-2006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해 돌풍을 일으켰던 팀으로, 올 시즌 들어 주축 선수들의 이적과 함께 17위로 밀려나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위해 전력 보강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울산 구단에 따르면 위건은 이미 월드컵 등 각종 경기 영상을 확보하고 이천수의 경기력에 대한 검증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로, 이천수가 팀에 합류하면 이적 협상과 함께 피지컬 테스트를 진행해 실전 투입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연협뉴스



환상의 피겨페어 연기

1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BMO캐나다 챔피언십피겨스케이팅 시니어페어 쇼트프로그램에서 아나벨 랑클루어(위)와 코디헤이 배리가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협뉴스

김연아 캐나다행

재활치료 후 세계선수권 준비

동계아시안게임은 끝내 포기

허리부상으로 2007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이 끝내 좌절된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당분간 재활치료를 전담한 뒤 2월 말 캐나다로 이동해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김연아의 어머니 박미희(48)씨는 19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어떻게 해서든 동계아시안게임 때까지 몸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다”며 “세계선수권대회 때까지 시간을 번 만큼 (김)연아의 재활치료를 전담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달 말까지 재활치료의 강도를 높이고 아픈 허리부위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초체력훈련은 물론 스케이팅 시간도 두 시간 정도로 늘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이달 말까지 동대문구 답십리동 하늘스포츠의학클리닉에서 오전·오후에 걸쳐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은 뒤 오후 늦게 태릉 실내빙상장으로 이동해 빙판훈련을 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지애 “감 잡았어”

여자월드컵골프 프로암대회 1위

신지애(19·하이마트·사진)가 제3회 여자월드컵골프 프로암대회에 참가했다가 19일(한국시간) 뜻하지 않은 청혼을 받았다.

아마추어 5명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시티의 게리 플레이어 골프장에서 18홀을 돈 신지애 팀은 핸디캡을 적용한 베스트볼 방식에서 57타를 쳐 오전에 티오프를 한 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골프장에 마련된 시상식장에서 신지애팀이 1등으로 호명되자 같은 팀의 조지 조지아 디스가 기쁨에 겨워 벌떡 일어나 신지애에게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며 외쳤다.

하지만 이 사람은 60대 할아버지였는데 더 큰 문제는 아내까지 대동하고 시상식장에 왔던 것.

시상식장은 일시에 웃음바다가 됐고 신지애는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신지애는 “처음 받아본 프러포즈인데 할아버지한테 받게 되다니...”라며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프로암 전에 “1등을 하면 받은 상금으로 한턱 쏘겠다”고 했던 신지애는 우승을 하더라도 프로 선수에게는 상금이 없다는 대회조직위원회 설명에 아쉬워 하기도 했다.

신지애보다 앞서 출발했던 김영(27)은 1~3위에 입상한 팀은 프로 선수가 반드시 시상식에 나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헛걸음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마린보이’ 박태환 키 얼마나 더 클까?

두달새 2cm 늘어 183cm

다음 주 성장판 검사키로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은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

박태환과 베이징올림픽까지 모든 훈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후원 계약을 한 수영용품 전문 브랜드 ‘스피드’는 다음 주에

박태환의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하아시안게임 직전 키가 181cm였던 박태환은 두달 사이 2cm가 더 자라 183cm다. 하지만 이는 세계정상급 선수들에 비해 여전히 모자란다.

박태환의 주종목인 자유형 1,500m 세계기록(14분34초56) 보유자인 후자의

장거리 강자 그랜트 헛켓은 198cm의 거구다. 자유형 400m의 경우 은퇴한 이안 소프가 세계기록(3분40초08)을 갖고 있는데 소프도 역시 195cm의 장신. 이번 성장판 검사는 박태환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가능해보기 위한 위한 것이다. 손석배 스피드 마케팅장은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박태환의 키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최근 1개월 사이에 2cm나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피드는 성장판 검사와 함께 근력 테스트와 기초체력 테스트 등 박태환의 현재 몸 상태를 점검하는 전반적인 정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